

이주동포 품은 광주, 재외동포청 유치 난기류

인천·제주·천안·고양 등 경합
민주·인권·평화도시 이점에도
외교부, 접근성 등 수도권 가닥
당위성 확보...정치권 공조 시급

이르면 오는 6월 신설을 앞둔 '재외동포청'
광주 유치 작업에 난기류가 흐르고 있다.

각 지방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이 뜨겁게 달아
오른 가운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재외동포청
을 서울 등 수도권에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
압도적으로 나타나는 등 광주시가 모처럼 치켜
든 정부기관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다.

고려인 동포를 최초로 받아들이는 등 여러 이
점에도 불구하고, 유치가 힘에 부치는 상황으로
전개되면서 광주 설립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
한 광주시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행보를 주문하
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.

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
에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730만명의 해외 동
포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인 재외동포청이 출범

절차를 밟고 있다. 그동안 재외동포 관련 업무
를 맡아온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을 해산하
는 대신 그 기능을 확대해 청 규모 조치가 신선했다.

광주시는 정부조직법 개정 직후 곧바로 외교
부에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유치전에 뛰어들었
다. 시는 재외동포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 자본
과 인권 도시로서 해외 네트워크가 풍부하다는
점, 이주민 포용과 사회통합의 축적된 경험과
성과를 이룬 '포용도시',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
이 없는 광주에 지역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점
을 내세우면서 유치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다.

경제난과 차별을 피해 이주한 고려인 동포를
최초로 받아들여 광주 고려인 마을을 조성해
7,000여명의 고려인 동포의 국내 귀환을 돕고 정
착 지원에 적극적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.

강기정 시장은 "광주는 20개국 40개 도시와
자매·우호 교류를 맺고 도시 외교 다각화를 모
색하고 있으며 세계호남향후회 등 재외동포 네
트워크가 풍부하다"며 "세계적 민주·인권 도
시로서의 관련 국제기구, 도시 간 활발한 교류
와 연대, 매년 세계인권 도시포럼을 개최하는
등 국제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"고 강조했
다. 2면으로 이어짐 /김용현 기자



봄의 정취 '만끽'

화창한 봄 날씨를 보인 26일 오후 벚꽃과 개나리가 활짝 꽃망울을 터트린 광주 중외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. /김태규 기자

광주·전남 특별지자체 밑그림 그린다

행안부 컨설팅 대상 선정

사무·권한 등 모델 설계

광주시와 전남도가 초광역 협력을 이끌 특별
지방자치단체 모델을 정부와 함께 설계한다.

광주시는 26일 "행정안전부 주관 특별지방자
치단체 설치 맞춤형 컨설팅 사업 대상에 선정됐
다"고 밝혔다.

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
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으로 사무를 처리
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 법인으로, 지
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부터 새롭게 시행
된 지자체 간 협력제도다.

광주시는 4월부터 진행하는 컨설팅을 통해

지역 특색에 맞는 사무 및 권한 발굴, 기관 구성
등 특별지자체 설치 방안 마련을 위해 행안부
등 중앙부처, 관련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댄다.

광주시는 특별지자체를 통해 광역행정 수요
에 탄력적으로 대응,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중복
투자 및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
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또 교통·SOC, 산업·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
광주·전남 지역 현안과 숙원사업을 대규모 국
책사업과 연계한 초광역 투자협업 사업으로 추
진해 미래 호남권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
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시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핵심사무 발굴 및
기관 구성 관련 자문 등 특별지자체 설립 논의
의 초기부터 정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, 적극적

정부 지원과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기회로 삼겠
다는 구상이다.

배일권 시 기획조정실장은 "컨설팅 결과를
바탕으로 시도 협의와 의회 소통, 시민 의견 수
렴 등을 진행하면서 특별지자체 설치내용과 추
진시기 등을 조율하는 등 단계적 절차를 밟아
나가겠다"며 "컨설팅 이후에는 시도 협력의 모
범사례를 창출하고 타 권역과도 협력하는 등 지
역발전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"고
말했다.

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해 7월 광주전남상생
발전위원회에서 광주·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
설치를 합의한 바 있으며, 특별지자체 설치를
위한 연구과제 수행과 행안부 및 시도 간 업무
협의를 등을 추진했다. /김용현 기자

“아이 둘 이상 가구 찾기 힘들어요”

작년 첫째아 비중 63% 사상 최고

지난해 출생아 중 첫째아 비중이 사상 처음으
로 60%를 넘어섰다.

아이를 둘 이상 낳는 가구를 점차 찾기 힘들
어진다는 의미로, 저출생 심화의 단면을 보여주
는 것으로 풀이된다.

26일 통계청의 '2022년 출생사망 통계(잠
정)'에 따르면 작년에 태어난 아이 중 첫째아는
15만6,000명으로 전체 출생아(24만9,000명)
가운데 62.7%를 차지했다. 이는 출산 순위별
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역대 가장 높
은 수치다. 종전 최고치였던 2021년 56.8%를
웃돌며 처음으로 60%를 넘어섰다.

지난해 출생아 중 첫째아는 2021년(14만
8,000명)보다 5.5%(8,000명) 늘었다. 2015년

에 1.4%(3,000명) 증가한 이후 7년 만의 반등
이다. 코로나19 등으로 미뤄왔던 출산이 이뤄
진 것으로 보인다.

반면 둘째아는 2021년 9만1,000명에서
2022년 7만6,000명으로 16.7%(1만5,000명),
셋째아 이상은 2만1,000명에서 1만7,000명으
로 20.9%(4,000명) 각각 급감했다.

지난해 전체 출생아는 전년보다 4.4%(1만
2,000명) 줄었는데, 아이를 둘 이상 낳지 않은
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다.

자녀를 2명 이상 낳지 않는 배경에는 출산 시
기가 점점 늦어지는 점,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
담 등이 꼽힌다. 2021년 기준 여성이 첫째아를
낳는 연령은 평균 32.6세로 1년 전보다 0.3세
늘었다. 1993년(26.2세) 이후 매년 높아지고
있다. /홍승현 기자

우리 고향 사람, 기부로 실천하는 고향 사랑

2023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한마당대축제

4.28 금 - 30 일

수원메세 수원역

